



▲ 9월 5일, 파리 18구에서 열린 커뮤니티 협회 포럼에서 18구 제1부시장 케뱅 아베(왼쪽), 18구 시장 특사 고문이자 파리 시의원 가브리엘 시리우아리(중), 18구 부시장 세르주 뒤퐁 차카프(오른쪽)가 파룬궁 부스를 찾아 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수련자들이 현지에서 적합한 연공 장소를 찾고 싶다고 말하자, 18구 제1부시장 케뱅 아베(Kévin Havet)는 수련자들에게 라흐마니노프 공원(Jardin Rachmaninov)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파리의 공원이라며, 그곳은 환경이 조용해 가부좌 연공에 아주 적합하다고 말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76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638만 9376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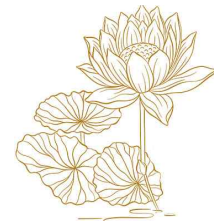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08期(2026.09.18) WWW.MINGHUI.ORG

한글판 1072호 minghui.or.kr



▲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라트비아 파룬궁수련자들이 발트해 연안의 작은 마을 압슈치엠스(Apšuciems)에서 여름 수련 교류 행사를 열었다.

주요 내용

【수련】법회 원고를 쓸 때의 마음가짐과 기점에 관해

【수련】트럼프-시진핑 회담, 중공의 광적인 악행에서 본 ~

【수련】천목으로 본 것: 양팔저울 2대, 두꺼운 장부 2권

【수련】축하카드 서명에 관하여

〈목차〉

■ 시사평론

중공의 최후를 알리는 삼경의 북소리	3
---------------------------	---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6
‘천지창생’ 읽은 은퇴한 역사 교사 “좋은 글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11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5
---------------------------------	----

■ 수련교류

법회 원고를 쓸 때의 마음가짐과 기점에 관해	17
트럼프-시진핑 회담, 중공의 광적인 악행에서 본 수련생 중의 보편적인 문제	24
천목으로 본 것: 양팔저울 2대, 두꺼운 장부 2권	31
‘자아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인식 교류	34
축하카드 서명에 관하여	46
‘잘게 말하는 법’을 배우다	49
법을 스승으로 삼고 착실하게 안으로 찾다	54
‘서유기’ 속 수련에 대한 깨달음	58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선군에 3년간 큰 가뭄이 든 원인은 군수가 하늘에 바친 채식 공양물을 밀어 넘어뜨려 개에게 먹이고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뱉어 하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오공이 천계에서 돌아와 자초지종과 이해관계를 설명한 이후 “군수가 무리를 이끌고 향을 피워 우러러 절하며 하늘과 땅에 감사하고 죄를 끌어안고 자책했다.” 온 성의 남녀노소도 모두 향을 피우며 염불하고 사람마다 선을 향했다. 이때 뇌신(雷神)이 뇌전을 내리치자, 성안의 관리와 서민들은 그 광경을 보고 더욱 경건해져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염했다. 그리하여 “이 한 소리 선념(善念)이 과연 하늘을 놀라게 하여”, 천계의 쌀 산, 밀가루 산이 즉시 무너져 내리고 자물쇠가 끊어지자 옥황상제가 즉시 비를 내리라는 성지를 내렸다. 비가 내린 이후 못 신들이 몸을 드러내어 시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 회의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사람이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선념을 내지 않을 때 곧 재액과 신의 벌이 내려온다.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를 공경하고 선한 소리가 귀에 가득할 때 선념은 곧 천계를 놀라게 하여 신의 기적을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신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때 신명도 진짜로 사람 앞에 나타난다.

서유기가 전달하는 것은 사람과 신의 소통이다. 작자는 인간 세상의 사회, 관가, 조정에 대한 풍자와 폭로에 국한되지 않고 평범한 사람에서 성인에 이르는 고된 수행의 길을 써냈다. ‘서행’은 지리적 공간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끊임없이 수신하고 끊임없이 제고하여 최종적으로 천국에 도달하는 수련 과정을 가리킨다.

減),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며(無憂無怖) “서방 제일이라 칭하니, 무상법왕문이로다(西方稱第一, 無相法王門)”로 이미 큰 자유자재함(大自在)을 얻었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경전을 구하는 사람의 세속 물건인 발우 하나를 바라겠는가? 이는 바로 사람의 사유와 관념으로 상상하고 짐작한 것이다.

여래가 “경은 가벼이 전할 수 없고, 또한 거저 얻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먼저 버림(捨)이 있어야 나중에 얻음(得)이 있다는 뜻이다. 만약 마지막 조금 남은 몸 밖의 물건마저 진정으로 버릴 수 있다면 진경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버리려 하지 않고 얻으려고만 하며 마지막 남은 인간 세상의 보물을 아까워한다면 당연히 “경은 거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관건은 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또 봉선군(鳳仙郡)의 3년 큰 가뭄 역시 각양각색으로 해석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봉건 군주제 하의 연좌제를 반영하여 군수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온 성의 민중이 재앙을 당한 것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당권자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민생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방식을 풍자한 것이라고 여기며, 어떤 사람은 명나라 조정을 은유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많다.

중국 고대 사회는 민주 사회가 아니었고 민중의 식자율이 매우 낮아서 관료 엘리트가 ‘교화(教化)’의 책임을 지고 민중에게 충효인애(忠孝仁愛) 등 유가 사상을 전달했는데, 이는 하나의 효과적인 사회 통치 방법이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관(官)’의 태도와 행위는 곧 이 지역 ‘민(民)’의 태도와 행위를 반영할 수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천재지변이 민중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은 곧 관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며, 관리나 군주의 반성과 자성을 이끌어냈다.

■ 시사평론 ■

중공의 최후를 알리는 삼경의 북소리

글/ 저우궁(周公)

[명혜망] 옛말에 “초경에는 사람들이 아직 잠들지 않고, 이경에는 징과 북이 울리며, 삼경 한밤중에는 귀신이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다. 삼경은 종종 밤이 가장 깊고 생사가 교차하는 경계선이다. 전통적인 민간 설화에서 ‘삼경의 북(三更鼓)’은 흔히 염라대왕의 최명부(催命符, 목숨을 재촉하는 부적)와 함께 언급된다. 그것은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목숨을 거두려는 경고로,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의 운수가 다해 응보가 다가왔음을 암시한다.

오늘날 중공 정권은 바로 ‘삼경’의 시간에 처해 있지 않은가? 시진핑(習近平) 방미를 계기로 중공 내부의 각종 인사들이 행동을 격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대법제자와 명혜망의 27년간 이어진 굳건한 연락을 끊으려는 해킹 시도, 미국 내 잠복 스파이들을 다급히 부추기는 것, 나아가 미국 내 중국인을 매수해 중공의 파룬궁 탄압에 가담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숙식제공과 여비까지 포함된(파룬궁 반대 행사에 한 번 참가하는 데 1인당 약 2천 달러의 매수 가격) 조건 앞에서도 재미 중국인은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에서의 합법적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고려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중공의 전면적인 침투, 미국 내정 간섭, 초국가적 탄압 등의 문제를 더욱 경계하고 있다.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이런 여명 전의 어둠, 종말 전의 광기는 아무리 봐도 중공의 최후가 다가오는 밤의 삼경 북소리와 너

무나 닳아 있다.

(*선의를 일깨움: 중국 수련생들은 명혜망과 모든 중국 자료점을 위해 정념을 발해, 정념을 강화하고 교란을 제거해 하루빨리 연락을 복구하고, 나아가 예전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수련해 주기 바란다.)

내우외환의 통치 위기에 직면한 중공은 과거 국민당을 이겼던 모든 수단에 금전적 지원까지 더해, 최근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강도를 한층 높였으며, 미국 영토에서 선동, 폭력, 조직적인 정치 및 스파이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막다른 길을 향해 미친 듯 질주하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세속을 초월한 진상과 양심의 힘이 중공의 수단과 방어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한때 기세등등하게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적극 가담했던 어느 지역 법원의 한 판사가 최근 매일 해외와 현지 파룬궁수련생으로부터 수백 통의 ‘권선(勸善) 전화’를 받고 있다. 전화에는 증오나 욕설이 없고 상세한 법률 분석, 역사적 교훈, 선악의 인과에 대한 인내심 있고 이성적인 권고만 있을 뿐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호연지기 넘치는 부름 앞에서 안하무인이던 이 판사의 오만한 기세는 눈에 띄게 수그러들었고, 강경했던 태도도 회피와 깊은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미시적인 변화는 중공 폭정의 취약한 본질을 정확히 보여준다. 전체주의 통치는 오로지 거짓말과 공갈로만 유지되기에, 수많은 목소리가 봉쇄를 뚫고 체제 내 직원들의 귓가에 진상을 전할 때 사악의 방어선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매일 걸려 오는 수백 통

성으로 단결하지 않았고, ‘두 마음이 다투자’ 진짜 가짜 미후왕(美猴王)의 큰 재난을 가져왔다.

옥화주(玉華州)에 이르렀을 때 세 제자가 세 왕자에게 무예를 전수했는데, 이렇게 남의 ‘스승’이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사자 요괴 한 무리를 불러왔다. 금평부(金平府)에 이르렀을 때 삼장법사는 며칠 머물다가 상원절에 무리를 따라 함께 등불을 구경했는데, 마음에 안일함이 생기고 선성이 점차 느슨해져 마침내 금등(金燈) 앞에서 코뿔소 요괴에게 잡혀갔다.

사타령(獅駝嶺) 고비의 땀을 시에서 “한 가지 생각이 생겨나자 백 명의 마귀가 움직이네”라고 말한 바와 같다. 수행자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집착이든, 설령 스쳐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제때 직시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마에게 붙잡혀 이용당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3. 서유기의 오독과 정정

서유기 이야기는 이미 집집마다 다 알고 있지만, 사회 관념이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이 갈수록 본래 의미에서 벗어났고 심지어 후흑학(厚黑學), 음모론도 적지 않다. 이런 식의 해석은 사실 책 속의 진정한 함의에 접근할 수 없다.

사제 4인이 대뇌음사(大雷音寺, 석가여래가 있는 곳)에 도착한 후 아난(阿難), 가섭(伽葉) 두 존자가 삼장법사에게 인사(人事, 답례품)를 요구하고 나서야 경전을 전하려 했다. 이 대목은 작자가 관가의 어둠이나 심지어 ‘종교의 위선’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작자가 서방 극락세계에 대해 묘사한 것은 생멸이 없고(不生不滅), 늘거나 줄지 않으며(不增不

이, 비, 설, 신, 의(眼·耳·鼻·舌·身·意)로 명명되어 바로 육욕(六慾)을 대표한다. 여인국(女兒國)과 비파동(琵琶洞) 전갈 요괴는 각각 색(色)과 욕(慾)을 대표한다. 평정산(平頂山)의 ‘외도가 진성을 미혹하다(外道迷眞性)’, 차지국(車遲國)의 ‘외도가 권세를 부려 정법을 능멸하다(外道弄強欺正法)’는 정도를 오로지 닦고 불문을 굳게 믿는 선심(禪心)에 대한 시험을 암시한다.

한때 생각이 움직여 초래한 고난은 더 많다.

제19회 ‘관음원의 승려가 보물을 도모하다(觀音院僧謀寶貝)’는 겉보기에는 손오공이 과시하고 드러내며 금지장로(金池長老)가 재물과 물건을 탐내어 초래된 화근 같지만, 그 근본을 파고들면 역시 삼장법사의 일념에 있었다. 사원 안의 명귀하고 화려한 다구를 보자 삼장법사는 한눈에 즉시 칭찬을 마지않으며 말했다. “좋은 물건이로다! 좋은 물건이로다! 참으로 훌륭한 음식에 훌륭한 그릇이로다!” 이 애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범심(凡心)이 동하자 즉시 사악한 존재에게 틈을 주었고, 금지장로가 맞장구치며 그에게 천조상국(天朝上國)에는 어떤 보물이 있느냐고 묻게 되어 이로 인해 가사를 도난당하는 고난을 끌어냈다.

통천하(通天河) 강가에서 삼장법사는 물이 넓어 가기 어려워 초조함이 배가되었는데, 그 조급한 마음을 즉시 요괴가 이용했다. 영감대왕(靈感大王)이 강물을 얼려 빨리 건너가게 유도했고, 삼장법사는 이 때문에 수중 저택으로 잡혀갔다.

제57회에서 손오공이 도적을 때려죽이자 사제 4인은 서로 원망했다. “장로(長老, 삼장법사)는 화를 품고 말에 올랐으며”, “손대성(孫大聖, 손오공)은 불화하는 마음이 있고, 저팔계와 사오정 또한 질투하는 뜻이 있었다.” 4명 모두 두 마음이 생겨 더는 정

의 권선 전화는 고집불통인 자들에게는 마음을 직접 찌르는 각성의 나팔이자 벼랑 끝에서 말을 멈추라는 경고의 두드림이다. 반면 완고한 중공 체제 입장에서는, 이 하늘을 뒤덮는 진상의 목소리는 그들의 해체와 파멸을 재촉하는 ‘삼경의 죽음 북소리’와 다를 바 없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이미 최후의 순간에 다다랐다. 중공이 선량함을 박해하고 양심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사악한 건물은 민심을 잃고 천리가 밝게 드러나는 궤양 속에서 흔들리며 무너지려 하고 있다. 아직 체제 내에서 시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삼경의 북소리’ 이면의 경고를 알아듣고 대세를 명확히 보아 악행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출로다.

■ 해외 종합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9월 6일, 미국 서남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심득교류회가 LA에서 개최됐다. LA, 샌디에이고, 애리조나주 및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다양한 민족의 수련자들이 교류회에 참가했다. 20명의 발표자 중에는 수련한 지 30년이 넘는 오래된 수련자도 있었고, 최근에야 수련을 시작한 서양인 수련자도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타인이 진상을 알 수 있도록 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회장에서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3개 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됐다. 서양인 수련자 마이크는 2023년에 법을 얻었다. 그는 미군에서 20년간 복무한 후 정부 부처에서 일했다. 과거에 간(肝) 문제, 관절 문제, 현기증, 심계항진, 서맥 등 건강 문제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 수련 후 그의 신체 상태는 점차 호전됐다. 한번은 재진을 받을 때 의사도 그의 간 상태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눈치챘다. 지속적으로 법공부와 연공을 한 후, 마이크는 건강 개선이 진정한 수련의 목적이 아니며 더 깊은 목적은 심성향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이크에게 더 큰 변화는 사상의 전환에서 비롯됐다.

9월 12일,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 중심가의 아우구스티너 광장에서 ‘정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많은 행인이 부스의 현수막과 패널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중공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 및 장기적출 등 악행에 대해 TV, 신문, 인터넷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여래불(如來佛)은 경전을 구하는 일이 “산처럼 큰 복연이요, 바다처럼 깊은 선행”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단지 진경(眞經)이 “영원히 동토에 전해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면서 경전을 구하는 일로 혜택을 받은 중생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때로는 부처님이 직접 고난을 안배하여 무리를 시험하기도 한다. 제24회 ‘네 성인이 선심을 시험하다(四聖試禪心)’에서 4명의 신령이 모녀 4명으로 둔갑하여 부귀와 미색으로 4인이 서쪽으로 가려는 결심을 시험했다. 할머니는 자기소개를 할 때 “소부인은 친정 성이 가(賈)씨고, 시댁 성이 막(莫)씨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 딸의 성명을 연결하면 곧 ‘막진(莫眞), 막애(莫愛), 막련(莫憐)’이 되고(역주: 각각 ‘진짜라고 여기지 말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연민을 갖지 말라’라는 뜻) 친정 성이 ‘가(賈, 假: 가짜)’이니 즉 이곳의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님을 뜻한다. 때때로 많은 고비와 고난의 해답은 바로 문제의 표면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는지는 수행자의 결심과 오성(悟性)에 달려 있다.

두 번째는 삼장법사 자신의 문제로 초래된 고난이다. 때로는 본래 가지고 있는 칠정육욕(七情六慾)과 각종 집착 때문이며, 때로는 갑자기 또는 임시로 생겨난 좋지 않은 마음과 관념이 요마(妖魔)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반사동(盤絲洞) 회차의 제목은 ‘칠정이 본성을 미혹하다(七情迷本)’로 7명의 거미 요괴는 칠정을 은유했고, 거미줄은 정사(情絲), 정망(情網)이 사람을 얽어매고 속박하는 것을 상징했다. ‘육적이 종적을 감추다(六賊無蹤)’ 회차에 나오는 육적(六賊)은 안,

온갖 교란과 유혹 앞에서 확고한 정념의 인도가 없다면, 선량한 본성도 오염되고 길을 잃으며 파문힐 수 있다. 또는 사람의 힘, 사람의 선량한 본성만으로는 길을 가며 만나는 흉악한 마귀를 완전히 막아내기 어려우며, 정념은 신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자 뜻을 보면 성(性)은 마음(心)에서 생(生)기고 정(情)은 성(性)에서 생겨나며, 셋은 서로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다. 삼장법사의 수행 역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끊임없이 단련하는 과정이다.

2. 수행의 길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고난

삼장법사가 겪은 많은 고비와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부처님이 안배하여 인연이 전생에 정해진 것으로, 4인을 시험하는 동시에 전생의 인연을 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흑송림(黑松林)의 황포괴와 백화수(百花羞) 공주는 천계의 정연으로 인해 속세로 내려왔고, 오계국 국왕은 문수보살(文殊菩薩)을 해자에 빠뜨린 탓에 3년간 우물물에 빠지는 재앙을 당했으며, 주자국(朱紫國) 국왕은 공작대명왕보살(孔雀大明王菩薩)의 새끼 새를 쏘아 다치게 한 탓에 왕후와 3년간 ‘부부 이별(拆鳳)’을 겪었고, 광한궁(廣寒宮)의 옥토끼와 소아(素娥)는 사사로운 원한이 있어 천축국(天竺國)에서 진짜 가짜 공주극을 벌였다.

이야기는 모두 전생의 인연으로 정해져 생겨난 것으로, “한 번 물 마시고 한 번 모이를 쪼아 먹는 것조차도 이전에 정해지지 않은 것이 없다(一飲一啄, 莫非前定)”는 것이다. 사제 4인은 이런 고비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동시에 수행 중에 자신도 모르게 원한을 풀고 공덕을 쌓았다.

수년간 나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갈수록 심해져 불안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소식의 진상을 묻고, 박해 반대와 장기적출 반대 청원서 또는 서명부에 서명해 성원을 표했다. 사엘(Sael)은 은퇴한 교사로, 그는 광장 반대편에서 곧장 부스 앞으로 다가와 ‘중공의 장기적출 종식’ 서명 현수막을 가리키며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자에게 이 일을 오랫동안 주목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이 동양의 고대 문명국을 흠모하기에, 그는 줄곧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말했다. “아직도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9월 5일, 프랑스와 독일의 파룬궁수련자들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코르보 광장에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파룬궁 공법을 시연하고 파룬따파 및 중공의 박해 진상을 소개했다. 어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전시판 내용을 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박해 반대 청원서에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3명의 독일 여성은 파룬따파 음악과 수련자들의 우아한 연공 동작에 이끌렸다. 박해 상황을 알리는 전시판을 본 그녀들은 자발적으로 다가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봤다. 수련자들의 설명을 들은 후 3명의 여성은 모두 청원서에 서명하며 파룬궁에 대한 박해 종식과 중국에서의 생체 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했다.

2026년 9월,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파리 각 구와 주변 도시들이 잇달아 커뮤니티 협회 포럼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현지의 문화, 체육 및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소개했다. 9월 5일과 6일, 파룬궁수련자들은 파리 18구, 19구, 10구 등 여러 지역과 파리 남쪽 외곽의 앙토니시 커뮤니티 협회 포럼에 참가해, 현지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공법을 시연했다. 많은 주민이 부스 앞에 발걸음을 멈추

고 지켜봤으며, 어떤 이는 인근 연공장 시간과 장소를 문의했고, 어떤 이는 연락처를 남기며 파룬궁과 9일 학습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희망했다. 당일 한 중학교 교장도 부스를 찾았다. 그는 파룬궁에 큰 관심을 보이며, 번뇌와 스트레스로 가득 찬 오늘날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는 ‘진선인(眞·善·忍)’과 같은 가치관이 필요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우 시민 축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필립스루에 성(Schloss Philippsruhe) 아래 마인강변 잔디밭에서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도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6일 오후, 파룬궁수련자들은 무대에서 시민들에게 45분간 공법을 시연했다. 노란색 연공복을 입고 다섯 가지 공법을 선보였으며, 그중 한 수련자가 현장 관객들에게 동작과 공법 원리를 설명하고 파룬궁의 ‘진선인’ 이념을 소개했다. 건강관리 보조원 레지나(Regina)는 부스에서 수련자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내면의 중심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선인’ 가치관이 사람이 내면의 중심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가치관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이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며,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사회가 될 테니 우리는 함께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에서 ‘진선인’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레지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에게 이는 공산주의의 특징이었다. “그것은 파괴할 뿐이며 거짓말과 기만으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인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파룬궁 박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갑자기 생겨난 안일함과 나태함 등 사람의 욕망에 직면하여 삼장법사가 즉각 배척하고 더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오정을 굴복시키는 회차에서 작자는 “성해류사(性海流沙)에서 벗어나니 마음에 걸림이 없네”라고 썼다. ‘성’을 은유한 사오정은 경전을 구하는 이야기에서 기본적으로 바르고 선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선량하고 정직한 본성은 쉽게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수행의 길에 믿음직한 보조와 권고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성’도 미혹될 수 있는데, 특히 수련이 착실하지 않을 때 그렇다.

제51회에서 손오공이 일행을 떠나 멀리 탁발하러 가고 남은 3명은 애타게 기다렸다. 굶주림과 추위가 몰아칠 때 저팔계가 한 누각에서 조끼 세 벌을 사사로이 가져왔다. 삼장법사가 그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했으나 듣지 않고, 저팔계는 직접 몸에 입었다. 이때 사오정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한 벌 입겠소.” 그리고 따라서 조끼를 몸에 걸쳤다. 결과적으로 누각과 조끼는 모두 요괴의 함정이었고, 사제 3명은 모두 독각시대왕(獨角兇大王)의 손에 떨어졌다.

이 회의 제목은 ‘정(情)이 어지러워지고 성(性)이 그에 휩쓸리는 것은 애욕에 순종하기 때문이요, 신(神)이 혼미하고 마음(心)이 움직이니 마두를 만나네(情亂性從因愛欲, 神昏心動遇魔頭)’인데, ‘인(因)’은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다. ‘마음’이 잠시 통제 작용을 잃자 ‘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여 애욕을 낳고, 동시에 ‘마음’의 정념이 이끌어주지 않자 ‘정’이 한 번 미혹되어 ‘성’도 따라서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애욕에 순종’하여 결국 전부 요괴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음을 볼 수 있다.

저팔계(猪八戒)와 사오정(沙悟淨, 沙和尚)은 각각 ‘정(情)’과 ‘성(性)’을 은유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정’을 “사람의 음기 중 욕망이 있는 것(人之陰氣有欲者)”으로 해석했고, ‘성’을 “사람의 양기 중 성품이 선한 것(人之陽氣性善者)”으로 해석했다. 고서에서도 보통 ‘정’을 ‘욕(欲)’과 연관 짓고, ‘성’을 ‘정(正)’과 연관 지었다. 예를 들어 동중서(董仲舒)의 ‘거현량대책(舉賢良對策)’에는 “정이란 사람의 욕망이다. 사람의 욕망을 정이라 이르며, 정은 제도가 아니면 절제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고, 공영달(孔穎達)이 주해한 ‘역·건(易·乾)’에는 “성이란 타고난 자질이니 바르고 샅되지 않다”라고 쓰여 있다.

이에 상응하여 저팔계는 더러운 사람의 욕망을 반영한다. 색욕, 교활함, 나태함, 탐욕은 모두 저팔계가 책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준 특징이며, 그에 대한 삼장법사의 태도 변화 역시 사람의 욕망을 대하는 수행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

처음에 삼장법사는 매우 ‘결점을 감싸며’ 저팔계를 편애하여 그가 고생하고 욕먹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가 하는 참언을 모두 깊이 옳다고 여겨 손오공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매번 위험에 빠졌다.

하지만 경전을 구하는 일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93회 결말에서 저팔계가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서야 하고 머물며 공양을 즐길 수 없다며 또 불평하자, 이때 삼장법사는 즉시 꾸짖으며 손오공에게 그를 때리라고 명했다. 저팔계 자신도 당황하여 말했다. “사부님이 이번에는 변하셨구나.” 이는 수행의 길이 곧 원만해지려 할 때,

벨기에 리에주시의 연례 레트루바유(Retrouvailles) 가을 문화축제에서 파룬궁 부스는 평화로운 분위기로 행사장 내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장소가 됐다. 사람들은 부스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했으며 공법을 문의하고 현장 수련자들과 교류했다. 50여 명의 시민이 현지 연공장으로 가서 파룬궁 공법을 배우고 싶다고 등록했다. 사회학 교사 조시(Josy)는 자신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진선인’) 가치관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로서 저는 반드시 진실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 가치관을 학생들에게도 전할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파룬따파 저서 ‘전법륜(轉法輪)’을 구매해 공법과 이념을 한 걸음 더 이해하길 희망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가부좌를 연습하며 생활 속에서도 이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진실, 선의와 관용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이 노력해서 따르는 방향이라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라트비아** 파룬궁수련자들이 발트해 연안의 작은 마을 압슈치엠스(Apšuciems)에서 여름 수련 교류 행사를 열었다. 3일 동안 수련자들은 단체 연공, 법공부, 심득 교류를 했고, 앵구레(Engure)와 투쿰스(Tukums)로 이동해 현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알렸다. 리투아니아에서 온 일부 수련자들도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 기간 수련자들은 인근의 두 도시인 앵구레와 투쿰스도 방문했다. 이 지역은 평소 파룬궁 행사가 적게 열리는 곳이기에 수련자들은 이 기회를 빌려 현지 주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중공이 중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진상을 알렸다. 일부 주민들은 흥미를 느끼며 파룬따파를 알아보았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박해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 사람들은 청원서에 서명하며, 보편적 가치인 ‘진선

인’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행위를 저지할 것을 호소했다.

9월 5일, 서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내륙 소도시 요크 카운티에서 제179회 요크 농업 박람회가 열렸다. 서호주 파룬궁수련자는 초청을 받고 참가해, 부스에서 5장공법을 시연했는데 우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에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했다. 재넬 하우이티(Janelle Hauti)는 파룬따파를 알아본 후 파룬따파의 ‘진선인’ 이념에 동의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이념은 널리 전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밝혔다. “파룬따파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9월 3일 추석 전날, 싱가포르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은 홍림 공원에서 ‘추석 맞이 진상 알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수련자들은 행사 중 리홍쑤(李洪志) 사부님께 추석 인사를 올렸다. 공법 시연, 요고(腰鼓), 합창, 미술전은 다양한 민족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어떤 이는 파룬궁을 알아보고 어떤 이는 중공의 박해에 대해 물었으며,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이도 있었다. 한 영국인 부부는 수련자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두 명의 중국인 청년이 수련자와 대화를 나눴다. 수련자는 그들에게 ‘천안문 분신자살’은 조작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한 사회가 ‘진선인’조차 용인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가짜, 악, 폭력(假·惡·暴)이 횡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에서는 모두가 피해자이며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이 동감하며 공청단과 소선대를 탈퇴해 길한 것을 좇고 흉한 것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게 만드는데, 사실 이것은 수행자가 마(魔)의 교란 속에서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워 본심을 잃고 자신의 ‘바른 마음(正心)’을 포기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만약 마음이 더는 선념(善念)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악념(惡念)이 다시 생겨난다. 손오공은 화과산(花果山)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요괴가 되어 악을 행하고 살생을 저질렀다. 이와 동시에 삼장법사는 황포괴(黃袍怪)를 만난 후 호랑이로 변했다. 이 이야기의 함의는 수행자가 더는 ‘바른 마음’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물질적 신체조차 사마(邪魔)의 교란과 침해를 받아 인신조차 보전하기 어려운데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제목 ‘사마가 정법을 침해하다(邪魔侵正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념(正念)을 잃지 않고 악념을 방종하지 않는다면 사마는 당연히 정법 수행자를 침해할 수 없다.

반면 심원이 바른길로 들어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제37회에서 삼장법사가 오계국(烏鷄國) 보림선사(寶林禪寺)를 지나며 묵어가려 할 때 승관(僧官)에게 거절당했다. 손오공이 사원에 뛰어들어 한바탕 소란을 피우자, 방금 전까지 거만하고 무례하던 승관이 금세 두려워하며 승려들을 이끌고 옷차림을 단정히 한 채 삼장법사를 맞이하며 융숭하게 대접했다. 이 대목의 제목은 ‘심원이 바른 곳에 있으니 모든 인연이 복종하다(心猿正處諸緣伏)’인데, 이야기의 함의는 사람 마음속의 정념이 진정으로 작용을 일으킬 때 주변 사람과 일도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다. 수행자 마음속의 정념이 한번 나오면 외부의 악의와 악연도 모두 경외심을 갖게 되어 감히 다시 함부로 굴지 못한다. ‘마음’의 다른 상태는 수행 진도에 직관적인 작용을 발휘한다.

‘서유기’ 속 수련에 대한 깨달음

글/ 일가(一歌)

[명혜망] 파룬파파(法輪大法, 파룬궁) 저작을 정독하고 다시 ‘서유기(西遊記)’를 보니 또 다른 체득이 있었다. 최근 느낀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체득을 적어 여러분과 교류하며 함께 격려하고자 한다.

1. 사제 4인의 심층적인 은유

서유기의 마지막 장에서 4인이 정과(正果)를 얻어 본위(本位)에 오른 후, 작자는 “한 몸의 진여(眞如)가 속세에 떨어졌다가, 네 가지 상을 합화하여 다시 몸을 닦네(一體眞如轉落塵, 舍和四相復修身)”라고 시로 평했다. 표면적인 사제 4인은 실제로는 ‘일체(동일한 사람)’의 4가지 다른 측면을 대표하며, 서행(西行)은 바로 이 각 부분을 제약하고 재편성하는 수신의 길임을 알 수 있다.

손오공(孫悟空)은 여러 차례 ‘심원(心猿, 마음 원숭이)’으로 묘사되는데, 그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心)’이다. 심원에도 두 가지 상태가 있으며 삼장법사(唐僧) 본인에게도 반영된다.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때, 삼장법사는 그 보호 아래 온갖 어려움을 물리치고 바른 믿음(正信)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반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발전할 때, 즉 삼장법사가 심원을 방종하게 내버려두고 더는 제약하지 않을 때 삼장법사 자신도 교란과 영향을 받게 된다.

제28회 ‘시마가 세 번 당삼장을 희롱하다(尸魔三戲唐三藏)’에서 백골부인이 세 번 변화하여 삼장법사로 하여금 손오공을 내쫓

‘천지창생’ 읽은 은퇴한 역사 교사 “좋은 글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명혜망](예루인 기자) 대만의 한 고등학교 은퇴 교사 우(吳) 씨는 평소 독서를 즐긴다. 얼마 전 친구가 명혜망 정기간행물 ‘천지창생(天地蒼生)’을 선물하자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잡지 이름, 표지 디자인부터 코너 기획과 내용 구성에 이르기까지 잡지 전체가 주는 느낌이 아주 좋았고, 서술이 알기 쉽고 명쾌하며 짙은 인문학적 향기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 교사였던 그녀는 은퇴 후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교류하고 나누는 것을 즐긴다. ‘천지창생’을 다 읽고 난 후, 그녀는 그중 적지 않은 내용이 친구들과 나눌 가치가 있으며, 일부 이야기는 역사 문화 교육의 보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 씨는 최근호 잡지의 표지 디자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표지는 한 장의 큰 사진과 세 장의 작은 사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서양의 문화예술과 불도신(佛·道·神) 신앙의 내용을 융합했고 내지에는 사진 설명도 첨부돼 있었다. 그녀는 잡지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호기심에 내지를 펼쳐 네 쪽의 그림이 담고 있는 함의를 자세히 읽었다.

권두언에서 읽은 옛사람의 시구

명혜망 소개에 따르면, ‘천지창생’은 전통, 예술, 미덕과 지혜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독자들에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제309기 권두언 ‘추수(秋收)’에서는 이백(李白)의 시구 “남호의 가을 물에 밤안개 걷히니, 물결 타고 곧장 하늘로 오를 수 있겠네(南湖秋水夜無煙, 耐可乘流直上天)”와 두보(杜甫)의 “가이없는 낙엽은 쓸쓸히

明
慧
周
刊

天地蒼生

第 309 期



BIG5.MINGHUI.ORG



우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천지창생’ 제309기 표지 디자인

떨어지고, 다함 없는 장강은 도도히 흐르네(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를 인용했다. 다사다난한 가을에 고대 시인의 시구를 읽고 우 씨는 깊은 감회를 느꼈다.

그녀는 “정말 고금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느낌이 들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묘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짧은 권두언 ‘추수’ 한 편이 감사와 축복을 전하고 있으며, 편집부의 정성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있는데, 바로 이 모순이 일단 표현되어 나오기만 하면 곧 다른 사람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이 모순은 곧 돌출될 것이므로, 수련자는 스스로 주의하게 될 것이다. 이 모순 중에서 오직 안을 향해 찾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부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순이 폭로되어 나오지 않고 이 모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집착을 발견하지 못하며 당신의 집착을 보아내지 못한다. 일체가 모두 평화롭다면 수련할 수 있겠는가?”

이는 세계 수련 환경이 마냥 평화롭고, 서로 좋기만 하며 갈등(모순)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수련하라는 것이며, 갈등이 마음을 자극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갈등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 표면으로 떠오른 그 집착, 사람마음, 관념이 가장 쉽게 보이며, 그것이 바로 닦아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어떻게 닦아버려야 할까요? 먼저 그것을 직시해야 하고(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배척하며(그것을 원치 않음), 그것을 제거해야[내려놓거나, 심지어 직접 정념(正念)을 발해 제거함] 합니다.

우리는 공산당 국가에 살고 있어 해외의 다른 국가들처럼 보도 소나 불학회가 없으므로, 법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더욱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상은 현재 개인적인 약간의 인식입니다. 베트남에 계신 수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있지는 않은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 공부하며 안으로 찾지 않고, 습관적으로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서 답을 얻기를 바란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법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즉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해 법으로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단체 수련 환경 중의 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이 일은 제게 사부님의 단체 법공부, 단체 연공에 관한 가르침을 다시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단체 환경에서 제 자신이 어떻게 ‘법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원칙의 지도하에 수련자들과 서로 원용하고 함께 정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각지 설법7-미국수도법회 설법’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정진이란, 그것은 바로 그가 시시각각 자신의 언행에 주의할 수 있고, 자신의 사상반응에 주의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할 수 있고, 늘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곧 개인수련 중에서 비교적 정진하는 것이다.”

“대법제자에게는 수련을 위해 비로소 나타난 모순이며, 법을 실증하기 위해 비로소 나타난 모순이다. 비록 이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고, 과시심이 들어 있으며, 개인의 집착이 들어 있고, 사람이 자신을 실증하려는 그런 요소가 들어 있지만, 그들이 알고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그들은 곧 고칠 것이다. 이는 속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제자들 중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모순은 또 그 밖의 한 가지 작용을 일으킬 수

이번 호 ‘천하대사(天下大事)’ 코너에서는 선원(神韻) 20년의 ‘개선(凱旋)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 그중 각계 인사들이 선원을 관람한 후의 피드백도 우 씨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어, 한 프랑스 회사 사장이 선원이 전달하는 신성(神性)의 함의와 사람들에게 주는 마음의 위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이에 깊이 공감했다.

우 씨는 자신도 선원을 여러 번 관람했다고 밝혔다. 매년 선원이 대만에 순회공연을 올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표를 사서 관람한다. 그녀는 선원 관람이 시각과 청각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공연이 보여주는 전통문화의 함의와 그 속의 덕을 중시하고 신을 공경하는 내용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은 글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우 씨는 은퇴 후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다. ‘천지창생’을 다 읽고 난 후, 그녀는 이 정기간행물에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방리방외(方里方外)’, ‘망망인해(茫茫人海)’ 두 코너에서는 많은 인물이 겪은 일을 들려주는데, 그중에는 고생을 참고 견디며, 역경을 딛고 일어서고, 굳세어 굽히지 않으며, 좋은 의견을 기꺼이 따르는 이야기들이 있다.

우 씨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설교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밝다고 여겼다.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 그들의 미래 인생, 직업,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그중 일부 내용이 역사 문화 교육의 보조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정기간행물을 다 읽은 후, 그녀는 역사적 관점에서도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난 일들은 문자와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옛말에 ‘오늘의 뉴스가 곧 내일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주인공이며, 누구나 역사를 쓰고 역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대본이 훌륭하고 다양합니다.”

‘천지창생’에는 ‘동방문화(東方文化)’, ‘서방예술(西方藝術)’, ‘사해식진(史海識眞)’, ‘불허차행(不虛此行)’ 등의 코너도 마련돼 있다. 우 씨는 그중 일부 내용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며, 기밀이 해제된 사료(史料)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해제한 UAP 문서, 외계인 기술 더 이상 은폐되지 않아’에서는 관련 자료와 일부 미확인 현상을 소개했다. UAP(미확인 이상 현상) 목격 사건 및 공간의 다차원 등과 관련된 내용도 그녀는 매우 흥미로웠다고 했다.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가 생각을 불러일으켜

은퇴한 역사 교사로서 우 씨는 잡지에 실린 역사 및 고대 문명 관련 내용에 특히 깊은 감회를 받았다.

그녀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역사를 가르칠 때 일부 ‘인류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런데 ‘천지창생’에 담긴 전통문화, 수련 이야기 등의 내용이 여러 각도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글이 알기 쉽고 명쾌해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고 했다.

오늘날 AI가 뜨거운 화제인 시대에, 우 씨는 역사, 전통문화, 예술, 그리고 인생 이야기를 다루는 이런 정기간행물을 읽게 된 것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

그녀는 “명혜망 정기간행물 편집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감 있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무의식중에 그의 체득을 너무 중시하거나 심지어 그의 인식을 문제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작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무엇이 ‘안으로 찾기’이고 무엇이 ‘정진(精進)’입니까? 사부님께서서는 설법 중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청중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각도나 다양한 표면적인 현상을 통해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해야만 비로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사부님의 관련 설법을 떠올릴 수 있으며, 법으로 자신을 대조해 잘 수련하겠다는 신념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2. 안으로 찾기: ‘사람을 배우고 법을 배우지 않는가?’

이 사건과 대조해보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갈등 앞에서 자신을 찾고, 왜 자신이 갈등에 말려들었는지, 왜 자신이 이 갈등을 보게 됐는지, 왜 자신이 갈등 앞에서 마음이 움직였는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등을 보았을 때 저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일부 수련자들은 왜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며, 조직을 잘하는 사람에게 쉽게 끌리는가? 그들은 말솜씨가 좋은 것을 수련을 잘하는 것으로, 능력이 강한 것을 심성이 높은 것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그들은 참여 인원이 많은 것을 일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수련이 정진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아닌가? 이 역시 사람의 기준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거울에 대조해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에게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구하며, 이미 나와 있는 답을 찾는 마음이

법을 스승으로 삼고 착실하게 안으로 찾다

글/ 베트남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베트남의 수련 환경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진상 알리기 항목과 진상 알리기 활동에서 비교적 적극적이었고, 표현력과 조직력이 강해 많은 수련자의 인정을 받았으며, 인터넷 교류를 조직해 많은 수련자의 참여를 이끌었던 한 수련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 그의 개인 상태와 대법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겼고, 공개적으로 대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 저를 포함한 많은 수련자가 충격과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표면적인 적극성, 능력, 영향력은 진수(眞修)·실수(實修)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련은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며, 한 사람의 능력, 말솜씨, 혹은 활동 규모로 수련 상태를 가늠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시종일관 ‘법을 스승으로 삼는다(以法爲師)’는 것을 근본적인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1. ‘안으로 찾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충격 역시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면 자신에게 닦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찾는 과정에서 저는 먼저 한 가지 인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련자 간의 교류는 서로 교류하고 함께 제고하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수련자 간에 비학비수(比學比修)하며 각자가 이야기한 개인적인 체득은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대법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수련자가 생동

중 국 소 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신장 우루무치시의 60여 세 파룬궁수련자 왕추이란(王翠蘭)은 2017년에 납치돼 같은 해 9월 부당하게 6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그녀는 신장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2022년 8월 왕추이란은 박해로 생명이 위독해졌고, 집으로 풀려난 지 반달도 안 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2017년 9월, 왕추이란은 부당하게 6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신장 제2 감옥(여자감옥)에 감금됐다. 왕추이란은 이번에 납치되기 전에는 건강이 매우 좋았는데, 그녀가 감옥에서 어떤 박해를 겪었는지는 알 수 없다.

후난성 창사현 랑리진 파룬궁수련자 연홍(言虹)은 2026년 6월 5일 오전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률적 차원과 윤리 도덕 등 측면에서, 연홍이 신앙을 견지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이치와 근거에 맞는 변호를 했다. 동시에 사실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그녀 본인이 실명으로 구매한 고속철도표 예매 내역 캡처 화면을 통해, 기소장에 명시된 특정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이른바 ‘범죄 증거’가 완전히 철두철미한 날조이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모함임을 폭로했다. 연홍도 자신을 위해 무죄를 변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심에서 연홍에게 3년 2개월형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연홍은 이미 박해로 인해 고혈당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산둥성 지난시 파룬궁수련자 차오청린(喬成林)은 2026년 1월 13일 진상 자료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납치돼 감금됐으며, 5월 18일 장추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소식에 따

르면, 그는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8월 19일 산둥성 감옥으로 이송됐다. 이는 차오청린이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으로부터 두 번째로 불법적인 선고를 받은 것이다.

장시성 주장시 차이상구의 62세 파룬궁수련자 쉬둥위(徐冬玉)가 2025년 11월 무렵 차이상구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녀는 여관에 감금돼 10여 일간 불법 심문을 받은 후 주장시 구치소로 이송돼 감금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1년 3개월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가족이 지난번 구치소에서 면회했을 때 쉬둥위가 눈에 띄게 야윈 것을 발견했다.

올해 32세인 **허난성** 허비시 파룬궁수련자 쑤리(蘇麗)는 두 아이의 엄마로, 2026년 5월 11일 아침 경찰에게 납치돼 허비시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8월 25일, 그녀는 허비시 산청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1년 3개월의 부당한 판결과 함께 벌금 2천 위안을 갈취당했다. 쑤리는 이미 항소했다.

인 아내는 언제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했다. 그녀도 때때로 내가 요리하거나 채소를 썰 때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손을 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나는 늘 내가 일을 재빠르게 하고 그녀가 느긋한 성격이라 일을 질질 끈다고 생각했다.

사실 내게는 일을 하려는 마음과 조급한 마음이 있었고 수련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평화로움이 없었으며 법에서 말씀하신 “느슨하게 · 천천히 · 둥글게(緩 · 慢 · 圓)”[대원만법-2. 동작도해(動作圖解)]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여기에 또 사부님과 법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숨어 있어 내 행동이 일의 발전 방향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모든 것은 사부님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그리 조급해할 필요가 있겠는가?!

맺음말

좋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성 문제다. 글을 쓰지 않았다면 몰랐을 텐데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좋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짚어냈고 이렇게 많은 사람 마음을 찾아냈다.

수련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뜻밖에도 말하는 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정말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그 속에 비치는 것은 모두 내 사람 마음과 부족함이다. 이후 나는 자신을 더 많이 찾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덜 집착하며 이러한 사람 마음을 하루빨리 닦아 없애 법의 요구에 도달하려 한다.

층차가 제한적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들이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상대방이 내 ‘조언’대로 일을 하지 않아 결국 결과가 좋지 않을 때면 자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말했다. 그 말속에는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일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던 기간에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자 때때로 심성을 지키지 못하고 강한 원망심이 담긴 이런 말을 내뱉곤 했다.

사실 이런 순조롭지 않은 일과 마주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괴로운 법인데 법리로 상대방을 개도해주는커녕 오히려 지적하며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모든 일은 사부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안배는 사람 마음과 편안한 생활을 바라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사부님의 안배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다(설령 한동안 ‘순조롭지 않게’ 보이더라도). 수련인이라면 ‘마음에 드는’ 안배와 ‘마음에 들지 않는’ 안배를 모두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사람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사람 마음이 수련인이 닦아 없애야 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부님의 안배 속에서 어떤 사람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재촉하는 말투: 조급한 마음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됐어! 됐어!”, “그건 그만하고 빨리 저거나 해!” 이런 재촉도 내가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다.

어떤 일을 하기로 계획하면 늘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조급하고 부산해 좀처럼 평온해지지 못했다. 오히려 속인

■ 수련교류 ■

법회 원고를 쓸 때의 마음가짐과 기점에 관해

글/ 중국 대법제자 수진(修真)

[명혜망]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가 현재 원고모집 중이다. 이 기회를 빌려 원고를 쓸 때의 마음가짐과 기점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순수한 마음을 품고 원고모집에 참여해야

예년 상황을 보면, 명혜망 중국법회의 원고 마감일이 다가올 때마다 대량의 원고를 받는다. 특히 마지막 한 주에는 원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타자를 치는 수련생은 초과 근무를 해야 하고 원고를 수정하는 수련생도 밤낮없이 강행군을 한다.

사실 대량의 원고가 밀리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저 참여하는 수련생들이 좀 더 수고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할 뿐이니, 이는 모두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상당부분의 원고가 원고모집 공지의 요구사항으로 보나 글의 질적인 면으로 보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글 속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어떤 이는 혼자만 뒤쳐질까 걱정돼 서둘러 몇 자 적어 제출하고는 사부님께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여긴다. 어떤 이는 백지를 내지 않고 원고모집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 어떤 수련생이 한 뭉텅이씩 원고를 모아오면, 다른 수련생이 대놓고 “당신이 이렇게 많은 원고를 모아온 걸 보면, 당신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네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곧 수련을 잘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 마음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본래 매우 신성하고 장엄한 법회인데 사람 마음이 들끓어 흠집이 생겼으니, 원고모집에 참여하는 모든 수련생은 원고를 취합하든 수정을 하든 타자를 치든 모두 생각해 봐야 한다. ‘원고모집 과정에서 나는 그 속에서 수련했는가? 마음가짐이 순수했는가?’

원고모집 중에 자신이 걸어온 수련의 길을 돌아보고,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수확이 있었고 또한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어 보완하고 바로잡아야 할지 살펴보아야 한다. 수련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기 위해 우리는 널리 배우고 널리 수련하며, 서로 격려하고 전체적으로 제고해 세간의 서약과 사명을 더욱 원만하게 완수해야 한다.

2. 참여하는 수련생 모두가 그 속에서 수련하는 것

수년간 우리는 전체적으로 협력해 중국법회 투고에 참여해 왔다. 질이 매우 뛰어난 글은 법회 개최 기간에 실리기도 했고, 연이어 게재되기도 했다. 이렇게 참여한 수련생들은 함께 수련 사명을 완수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원고 작성, 취합, 수정, 타자에 임했다. 수련생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얻기 힘든 수련 인연이자 우리가 수련 속에서 실습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수련의 한 과목이기도 하다.

어떤 수련생은 평소 수련을 아주 착실히 하지만 학력 수준이 낮아 글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글솜씨가 있는 수련생이 대필해 원고를 작성해 준다. 어떤 수련생의 수련 경험은 매우 감동적인데, 대필하는 수련생은 글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구술한 내용의 원형을 보존한다. 글이 완성된 후에는 구술한 수련

럽게 대하고 언제나 선의로 대해야 한다. 예전에는 어머니만 늘 그렇게 굳은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나 역시 똑같았다. 예전에는 늘 다른 사람만 바라보았으니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됐다.

명령조로 말하기: 자만

한번은 아내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아내가 울면서 내게 소리쳤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나는 영문을 몰랐다. 나중에 아내는 울면서 하소연했다. “당신은 늘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듯 말해.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공부를 비교적 잘했고 스스로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며 능력이 강하다고 여겼기에 늘 일을 계획하고 배치하기 좋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이 내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여기며 자신을 높였다. 또 상대방의 계획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으며 남의 의견도 귀담아듣지 못했다. 매우 강압적으로 행동해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다. 평소에도 내가 한 계획이나 했던 말을 마음속으로 자주 되짚어 보면서 일을 얼마나 빈틈없이 잘 처리했는지 스스로 흡족해하며 우쭐해하는 마음과 과시심을 키웠다. 엄중하게 말하면 이것은 자심생마(自心生魔)의 전조다.

원망하는 말투: 원망심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뿐인데 곧바로 되받아치려 한다. 이것 역시 ‘남이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표현이다. 상대방이 심지어 어떠한 선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은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전법륜)라는 수련인의 기본 요구에 도달하기에도 아주 큰 격차가 있다.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기: 선하지 못함

또 다른 표현은 말할 때 표정이 없고 심지어 굳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가족들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지만 수련생인 어머니와 나는 때때로 잘 호응하지 못하고 무표정한 모습을 보여 가족들의 미소를 굳어버리게 했다. 집에 대법제자가 두 명(어머니와 나)이나 있지만 가정환경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평화롭고 온화한 분위기가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내는 말할 때면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 그녀가 내 문제를 깨닫도록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굳은 표정으로 말하는 것은 우선 선(善)이 부족한 것으로 수련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비롭고 평온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배후에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마음이 숨어 있어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살핀다. ‘이 일이 뭐가 그렇게 기쁜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심리 때문인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기뻐하는 그 일이 도덕적인가?’

법에서 늘 다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집착을 더 많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령 속인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자신의 세계 속 중생을 대하듯 상대방을 너그

생과 함께 재차 확인하며 오류가 없는지 살핀다. 어떤 수련생은 원고를 수정할 때 당사자를 찾아가 왜 일부 문구를 삭제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이 기회를 빌려 수련인의 글에는 감정을 부추기거나 수식하는 문구를 쓰지 말고 진실함을 요구하며 본질을 봐야 한다고 교류한다.

너무 날이 서 있거나 공산당 당문화(黨文化) 메시지가 담긴 글은 당사자와 인내심을 갖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

글은 곧 그 사람과 같아서 글 속에서 수련인이 평소에 다진 탄탄한 수련 기초가 드러나며, 수련인의 경지와 품행도 글 속에 잘 반영된다. 원망심을 품거나 질책하고 밖으로 찾는 모습도 모두 글 속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평소 수련하면서 교류할 때부터 자신이 어떤 방면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수련해야 할지, 어떤 방면을 제때 바로잡아야 할지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련생은 자신의 일사일념(一思一念)을 새롭게 반성하게 되며, 매번 글을 쓰면서 평소 수련에서 신경 쓰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찾아냈다고 느낀다. 그 후 다시 쓰고 다시 수련하며,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안으로 찾고 안으로 수련하면서 원고를 완성하게 된다.

마음가짐이 바른 수련생들은 투고를 마친 뒤,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연마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느끼며, 또다시 새로운 인식과 승화, 제고가 있었다고 느낀다. 원고를 하나의 임무로 여겨 완성하거나 혼자만 뒤흔치지 않으려고 참여한 수련생들은 진수(眞修)를 거친 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3. 글은 곧 그 사람이니 자신에게 엄격해야

이런 일이 있었다. 세계 파룬따파의 날 원고모집 때, 어떤 수련생이 자신이 쓴 글이 제법 훌륭하고 멋지다고 느꼈다. 심지어 법회가 열리기 전 글을 쓴 수련생은 그 글이 민중 사이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꿈을 꾸기도 했다. 글을 쓴 수련생은 원고를 수정하는 한 수련생에게 이 글에 관해 이야기했다. 당시 원고를 수정하는 수련생은 이 글을 수정하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글을 쓴 수련생에게 이 원고를 자신의 메일함으로 보내라고 했다.

이 원고는 법회에 채택되지 않았다. 글을 쓴 수련생이 원고를 수정하는 이 수련생에게 물었다. “당신이 보기에 이 글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원고를 수정하는 수련생이 말했다. “이 원고는 언사가 너무 날카롭고 논평이 과하며, 포괄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뼈대만 있을 뿐 세부적인 요소는 몹시 부족합니다.” 수련생은 또 덧붙였다. “글이란 수련인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원고모집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닦고 수련해야 하며, 무엇을 쓸지, 어떻게 쓸지, 어떻게 고칠지, 왜 고치는지를 교류해야 합니다. 이후 일상적인 수련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존재하는 수련 문제에 유의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원고모집에 참여하는 기점이 지 단순히 쓰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이 글은 명혜망의 일상적인 교류 글에 실렸는데, 원고를 수정한 수련생의 말처럼 명혜 편집 수련생이 원고의 날카로운 표현을 대량으로 삭제하고, 논평 성격을 띤 방대한 분량을 덜어냈다. 수정된 글은 소박하고 간결해 읽기가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으며, 맑고 순수한 느낌을 주었다.

‘좋게 말하는 법’을 배우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비록 서른 살이 됐고 수련한 지도 20년이 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야 아직도 ‘좋게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간혹 사람들이 “말을 왜 그렇게 거칠게 해?”, “말을 좀 좋게 할 수 없어?”라고 했지만 진지하게 깨닫지 못했다. 이후 결혼해 아내와 함께 살게 됐다. 그녀는 온화하고 늘 나지막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다. 말 때문에 몇 차례 불쾌한 일이 생긴 뒤에야 이 방면에서 수련을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좋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수련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반문하는 말투: 조금하고 참을성 없는 마음

좋게 말하지 못하는 데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표현은 말할 때 반문하는 말투를 즐겨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떤 일을 하라고 당부할 때 “아까 이미 하지 않았어?” 혹은 “지금 하고 있잖아?”라고 말하곤 한다. 그 속에는 ‘이미 다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또 묻는 거야!’라는 뜻이 은연중에 담겨 있다. 그 배후에는 참을성 없는 사람의 정과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는 데 대한 반발심이 있다.

사실 많은 경우 상대방은 그저 선의로 한마디 일깨워 주는 것

[직업]

·진상을 아는 초등학생/중학생/대학생/대학원생(석사생/박사생)
 ·진상을 아는 교사/교육 종사자
 ·진상을 아는 노동자/농민/의사/군인/경찰/도시관리요원(청관)/
 기업가/회계사/변호사/법조계 인사/문화계 인사/현급 공무원/시급
 공무원/성급 공무원/은퇴한 건축가……

[연령]

진상을 아는 70대 노인/진상을 아는 젊은이/진상을 아는 80년
 대생/진상을 아는 90년대생/진상을 아는 2000년대생……

[성별 및 민족]

진상을 아는 티베트인/진상을 아는 남학생
 만약 이런 방식으로 서명한다면, 구체적이면서도 모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축하카드에 가명으로 서명해도 되지만 이름을 짓는
 일은 사실 매우 학문적인 일이다.

성명학은 문자학, 역사학, 민속학, 사회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
 의 지식이 융합된 학문 체계다. 그 근본 목적은 적절한 성명을 통
 해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의 명리적 특징, 사회 규범 및 문화적
 배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만약 주의하지 않는다면,
 수련자들이 지은 가명은 너무 특이하거나 중복률이 매우 높은 문
 제가 발생하기 쉽다. 중복률이 높으면 개인을 식별하는 의미를 상
 실하게 되고, 사회 규범이나 문화적 배경에 맞지 않으면 다소 어
 색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축하카드 서명에 가명을 쓰지 않
 으면 더 간단해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피할 수 있다.

이 일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수련 중에는 진지하고 엄숙하
 며 엄격해야 하기에 이를 글로 써 수련생들과 나누려 한다. 그렇
 다. 수련인이 쓰는 글은 속인의 원고모집 행사와는 판이하다. 속인
 은 원고모집에서 순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수단을 동원하며, 과장이나 위조, 심지어 금전 거래 등 온갖 방법
 을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수련인은 바로 그러한 거짓과 위선을 철
 저히 버리고, 헛된 말이나 허풍을 피하며, 진실함을 추구하고 과시
 심 등 사람 마음을 섞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모집에 참여하
 는 우리 모든 수련생은 바로 그 속에서 수련하고 있는 것이다.

4. 생각하고 돌아보며 함께 바로잡다

원고 취합에 참여한 수련생은 원고를 모을 때 다른 수련생과
 함께 명혜망의 원고모집 공지를 진지하게 읽어보았는가? 취합된
 원고들을 읽고 난 후 수련생의 수련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발견했는가? 수련생과 솔직하고 진심 어린 교류를 나누었는가?

어떤 수련생은 정말로 중국법회 원고모집 공지를 읽어본 적이
 없는데 주변 수련생들이 거둬 일깨워주고 격려해 주자 마지못해
 원고를 써내기도 했다. 어떤 원고는 고작 100여 글자로, 대충 언
 제 법을 얻었는지 대법 속에서 깊은 혜택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
 을 두루뭉술하게 적어냈다. 어떤 경우에는 10여 편의 글이 한꺼
 번에 들어왔는데 이 역시 100여 글자 분량에 서식, 내용, 문구가
 거의 비슷했고 심지어 글 제목조차 대동소이했으며 그저 글쓴이
 의 필명만 달랐다. 이런 원고는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거나 서로
 베끼고 모방한 것이다.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글도 있지만 여기서
 는 언급하지 않겠다. 또 어떤 것은 진상을 알릴 때 세인에게 “만
 약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에 동의하신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어주시면 탈퇴하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식이었다. 어떤 글은 장황하고 맹탕이라 수련생이 수정을 거치고 나면 남는 글자가 별로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글을 두고 타자를 치는 수련생과 투고하는 수련생 모두 난감해진다. 타자를 치자니 이런 글은 전혀 의미가 없고, 타자를 안 쳐주자니 인위적으로 수련생이 원고모집 활동 참여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같다. 투고하는 수련생 역시 이런 글을 명혜망에 투고하면 명혜망 원고 심사 수련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것이라 느낀다.

수년간 늘 이런 상황이 존재했다. 작년에는 참여한 수련생들이 분초를 다투며 타자와 원고 수정을 마친 후, 마침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대중 때우려는 글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량의 원고가 쌓이면 어찌해야 하는가?’ 원고 속에 수련인의 경지는 드러나지 않은 채 오히려 사람 마음만 가득하고 쓸데없는 말만 수두룩하다 보니, 타자를 돕는 수련생들마저 심신이 지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피드백을 들은 후 오래전부터 이 주제로 교류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펜을 들게 됐다. 기왕 원고를 쓰는 것 자체가 수련 중이라면, 원고를 쓰는 우리 수련생은 반드시 순수한 마음이 짐을 품고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을 적어 내려가야 한다. 다 쓴 글이라 할지라도 후속 작업에 많은 수련생이 동참해 함께 원고모집 과정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를 쓰는 수련생이 단지 백지를 내지 않기 위해 요구에 맞지 않는 원고를 내밀며 대중 얼버무린다면 대체 이게 어찌 문제가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을 대중 넘기는 것이자 자신마저 속

조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나타낸다. 하지만 자신을 지칭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서명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다른 예로 ‘세인(世人)’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 평범한 사람 또는 대중을 가리킨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표현은 단연코 ‘세인들이 다 안다’는 말일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단어는 중립적으로 사회의 대다수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며, 흔히 특정 대상(예: 은둔자, 현자)과 대비될 때 세속의 보편적인 관념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기도 한다. ‘세인’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그 정의, 역사, 문학적 활용 및 감정적 색채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개 외적인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지 자신을 칭할 때 쓰지는 않는다. 작문 연습을 할 때 “나는 한 명의 세인이다”, “나는 한 명의 중생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의 문화와 문자 습관에 더욱 부합하고, 또 익명의 필요성(*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안전 고려)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서명 방식을 참고할 것을 건의한다.

[통칭]

·○○ 지역의 진상을 깨달은 사람/진상을 아는 세 명의 평범한 서민/진상을 깨달은 한 명의 광저우 시민/진상을 깨달은 한 평범한 사람

·한 평범한 사람의 진심 어린 안부/한 평범한 사람/진상을 추구하는 사람/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용감히 진상을 마주하는 사람……

“무사무아(無私無我), 선타후아(先他後我)의 정각(正覺)”(정진요지-불성무루)으로 수련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에 도달하려면 가장 좋은 법보(法寶)는 바로 법공부를 잘하는 것이며, 갈등에 부딪혔을 때 겉으로 보아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든 모두 자신을 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온전히 법과 중생을 담아야만 진정으로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축하카드 서명에 관하여

글/ 명혜 간행물 편집부

[명혜망] 신정, 설날, 5·13, 추석 등 4대 명절이 될 때마다 사부님께 드리는 수많은 축하카드가 명혜망으로 쏟아진다.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은 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축하카드의 서명에 관한 것이다.

수년간 우리는 ‘진상을 아는 세인’, ‘진상을 아는 중생’ 같은 서명을 자주 보았다. 이 축하카드들은 세상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구원된 후의 심정이나 상태를 전달해주어 매우 소중하며, 명혜망에 발표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 자신의 선념(善念)과 정념(正念)에 대한 증거다. 그러나 ‘중생’, ‘세인’이라는 표현을 서명으로 사용해 자신을 칭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특이하며, 비수련자 독자들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중생(衆生)’은 광범위한 생명 형태를 포괄하는 어휘다.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중생’은 보통 사람과 동물을 지칭하는 데 쓰이며, 생명의 다양성과 광범위성을 강

이는 일이다. 어쩌면 수련생은 그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수련생을 위해 대필을 해주거나 대신 사람을 구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하면 된다.

또한 원고모집 행사 중에 갖가지 사람 마음을 충족시키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수련생이 있다. 자신이 남달라 수련을 제법 잘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며 수련생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통제하려 들고 작은 울타리를 형성한다. 이는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며 언행과 생각의 부적절함 탓에 수련생 사이에 간격과 마찰을 빚어내기도 한다.

참여하는 모든 수련생은 이 기회를 빌려 스스로 반성해 보길 바란다. 이렇게 신성한 일을 하면서 강한 사람 마음을 품어선 안 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수련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수련인이 쓰는 글과 원고는 속인의 글과 달라서 우리는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수련에 비중을 두며, 원고모집에 기필코 참여해야만 어찌어찌 된다는 것에 치중하지 않는다.

올해 원고모집 공지에서 수련생들은 이미 인식했다. 수련인의 교류 심득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 중에 어떻게 각 층차의 법리를 깨닫고 그것으로 자신의 수련을 이끌었는지, 나아가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고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굳건히 걸으며, 인성(人性)에서 불성(佛性)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자신이 한 속인에서 신불(神佛)로 수련 성취해 가는 과정을 적어내는데 어찌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상은 개인적인 인식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허스(舍十)

트럼프-시진핑 회담, 중공의 광적인 악행에서 본 수련생 중의 보편적인 문제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공 당 수괴 시진핑이 곧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 일을 둘러싸고 중국공산당(중공)은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파룬궁 박해를 가중하며 매우 광분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중공은 간첩 활동과 해외 중국인에 대한 매수 및 조종을 강화했으며, 중국 대법제자와 명혜망의 오랜 연락을 끊으려 기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보름 남짓(8월 말부터 현재까지) 내가 사는 시와 주변 현, 시, 나아가 성 전체에 걸쳐 대규모 ‘노크’ 작전이 나타났다. 예전과 다른 점은 이번 ‘노크’ 작전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경찰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문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전 과정을 녹화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어떤 자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불법 수색, 가택수색, 납치를 진행하는 등 극도로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만 이번에 괴롭힘을 당한 파룬궁수련생이 무려 50명에 달한다(아직 명혜망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불법 가택수색, 납치, 감금된 사람도 여러 명이다. 이번 박해와 관련된 범위와 강도를 보면 1999년 ‘7·20’ 당시의 괴롭힘 및 납치와 매우 유사하다.

공산당이 막바지에 다다라 붕괴를 앞두고 있는 오늘날, 정법시기 사명이 곧 끝나가고 대법제자가 중생구도의 역사적 사명을 완

은 집착심이 없으니, 상당 부분 당신이 그 정(情)에 대한 집착심을 버리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이후 아마도 아내가 딸에 대한 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인지 딸도 점차 법공부를 중시하게 되었고 매일 꾸준히 연공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든 모두 집착이 될 수 있으며 게다가 대부분 정(情)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그 생각만 한다면, 단지 집착을 버리려 하는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우선 끊임없이 법공부를 하고 법 안에서 제고되어 대법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일단 심성이 진정으로 제고되어 마음속에 중생을 품고 자기 천국 중생들의 간절한 기대를 품게 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맺음말

사부님께서는 설법하셨습니다. “나는 또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사실 당신들 이전의 본성(本性)은 위아위사(爲我爲私)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당신들이 앞으로 일을 함에 먼저 남을 생각해야 하고 무사무아(無私無我), 선타후아(先他後我)의 정각(正覺)으로 수련 성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역시 남을 위하고 후세 사람을 위하는 데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법(大法)의 영세불변(永世不變)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정진요지-불성무무)

사람에게 있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련인은 또한 반드시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신에게 다 지적해 준다면, 그것을 당신이 수련한 것으로 칠 수 있는가? 물론 수련 중에는 사부가 사람의 입을 빌려 점화하는 것도 있는데, 당신들의 수련은 내가 배치했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다시 방할(棒喝)하노라]

어떤 수련생은 항상 다른 수련생에게 무슨 집착이 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걱정하며 늘 자신의 관념으로 남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미 본인의 집착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수련생을 위해주는 것이고 수련생에 대한 자비라고 여깁니다.

한동안 딸의 수련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연공하기 싫어했고 법공부에도 정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몹시 초조해하며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자 수련생을 집으로 불러 딸과 교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생이 올 때마다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까지 쿵쿵 닫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녀간에 마음의 벽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오자 아내는 딸의 태도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교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딸에게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당신은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감정으로 대했고 당신의 기준으로 딸에게 요구했어요. 겉보기엔 딸의 문제 같지만 사실 모두 당신 마음이 초래한 거예요. 당신은 딸의 부족한 면만 봤지 장점은 보지 못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명리를 담담하게 여겼고 동정심이 많았잖아요. 대법을 수련한 후로 딸은 먹고 입고 노는 것만 따지며 유행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더욱 달라졌어요. 세 번이나 시련을 겪었는데,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딸에게는 우리처럼 그렇게 많

수해 곧 천국으로 돌아갈 오늘날에 뜻밖에도 이렇게 대규모의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중공의 본성과 멸망하기 전의 발악 외에도, 우리 수련생 자신 역시 반드시 누락을 보완해야 한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닦아야 할 것을 닦지 못했는가? 내려놓아야 할 사람의 마음, 관념, 집착을 줄곧 내려놓지 못한 것은 아닌가?

수련생은 일의 표면적인 현상을 두고 사안을 논해서는 안 되지만, 핵심 증상을 알면 병의 근원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면적인 현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최근 우리 시에 타지에서 공안국장 한 명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이다. 이 자는 최악이 극에 달한 인물로, 타지에서도 대법제자를 박해하던 악마였으며 그 손에는 대법제자들의 피가 가득 묻어 있다. 이 자는 부임하자마자 대법제자의 피를 발판 삼아 위로 기어오르려 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각 파출소의 인력이 대부분 신입으로 교체됐고 어떤 파출소는 간부진이 전원 교체됐으며, 과거에 진상을 듣고 이해했던 경찰 중 일부는 은퇴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됐기 때문이다. 새로 부임한 젊은 경찰들은 대부분 진상을 모르고 중공 악당의 거짓말에 깊이 중독돼 대법과 대법제자를 적대시하고 있다. 그래서 99년부터 시작된 법난(法難)이 또 한 차례 새로운 고조를 이루게 된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두 외적인 표현일 뿐이다.

세상에 우연한 일이란 없다. “당신들은 ‘자연(自然)’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필연(必然)’이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정진요지-도법)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보면 주로 다음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수련을 느슨히 하고 보편적으로 태만, 마비, 안일함에 빠졌다

현재 수련하는 대법제자들 사이에서 수련에 대한 태만, 마비, 안일함은 거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99년 ‘7·20’ 이전에 법을 얻고 수련한 많은 노(老)수련생들은 ‘7·20’ 당시 생사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버려둔 채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하고 천안문에 가서 현수막을 펼쳤다. 밤낮으로 별빛을 보며 걷고 이슬을 맞으며 시골로, 산간 지역으로, 도시로 향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언덕을 넘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 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며 표어를 붙였다. 중생구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나아가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었던 대법이 빚어낸 미래 대각자(大覺者)의 그 품모는 하늘을 놀라게 하고 귀신을 울릴 만큼 비장하고 위대했으며, 전 우주의 신들을 탄복하게 했다.

27년이 지나 당시 주력이었던 대법제자들은 대부분 노년에 접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80, 90대 노인이 됐으며, 일부는 병업 고비를 겪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개별적으로 낙오되거나 법을 떠난 이들도 있어 남은 인원이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비록 세 가지 일을 하고 진상을 알리며 중생을 구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7·20’ 직후 몇 년과 비교하면 실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수많은 세월 동안 다들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습관이 됐다. 점차 많은 사람이 기계적이고 마비돼, 자신이 이미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극렬하게 대가를 치렀으니 지금 정법의 마지막 시기에는 그저 안정적으로 마지막 길을 잘 걸어가야 하고, 더 이상 어떤 착오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며,

을 할 때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고, “옳은 것은 그이고 잘못된 건 나이니”(홍음3-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라는 법리에 따라 갈등에 부딪히면 곧바로 안으로 찾는 훌륭한 기제(機制)를 형성해야 합니다.

7. 속세의 명리정(名·利·情)에 집착해 놓지 못하다

이는 많은 노년 수련생들에게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병업’에 집착하고, 자신의 ‘퇴직금’에 집착하며, 자신의 자손들에게 집착하는 등입니다.

예를 들어 한 수련생은 십여 년 전부터 자손들 일로 몹시 괴로워하며 저를 찾아와 교류했는데, 십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여러 번 저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저와 교류할 때 “제가 또 무슨 무슨 집착심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여 년 전에도 그 집착을 찾으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집착만 찾고 계시는군요. 집착심을 찾는 것은 그저 수련 중의 한 가지 기제일 뿐이고, 사람 마음을 내려놓고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근본 목적입니다.”

또 어떤 이는 무슨 일만 생기면 이른바 상의하고 교류한다며 전부 수련생을 찾아가 묻습니다. 게다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법에 대조해보는 것이 아니라, ○○ 수련생이 이렇게 말했다거나 명혜망에 이렇게 저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의존심을 키우게 되어 사람만 배우고 법은 배우지 않으며, 법으로 자신의 수련을 지도할 줄 모르게 됩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설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문제를 당

쟁투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부류는 무슨 일에 부딪히면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합니다. 아침하는 말만 듣기 좋아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닫습니다. 수련생이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면,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기만 하면 발끈해서 도리어 남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 수련생도 당신에게 무슨 집착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집착스럽게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다른 한 부류는公安 경찰을 마주했을 때 격분하며 모든 경찰을 사악으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확고하고 사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과감히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지 과시합니다. 이것은 대법을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경찰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선한 생각으로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대하고 구원할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겉보기엔 올바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벗어났고 전혀 선하지 않으며, 결국 중생이 대법에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수련하며 제고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입니다. 왜 이 집착을 없애기 어려울까요? 이는 우리가 장기간 중공 악당 문화의 ‘투쟁 철학’에 세뇌된 결과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집착을 없애려면 우선 법공부를 잘하고 많이 해서 법 안에서 제고하는 것 외에도, 동시에 ‘9평 공산당’, ‘해체 당문화(解體黨文化)’ 등을 많이 보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중공 악당 문화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일

무사하고 순조롭게 원만(圓滿)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강도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오히려 ‘임무 완수’를 위해 진상을 알리는 것에 더 가깝다. 게다가 사악의 감시가 극에 달해 360도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가 되자, 밖에서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인원수도 크게 줄었으며, 아직 알리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도 말만 하고 자료는 주지 않으면서 몸에 대법 진상 자료를 지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긴다. 많은 시민은 이미 몇 년째 대법 자료를 보지 못했다고 반응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사부님께서 ‘정법시기 대법제자’에서 하신 설법과 매우 비슷하다. “사실 소수 수련생은 줄곧 사악을 타파하고 진상을 알리는 일을 한 가지 내키지 않는 일로 여기며 마치 사부를 위해 무엇을 하고 마치 대법(大法)을 위해 별도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원만의 표준에 도달했다는 나의 말을 듣기만 하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신을 느슨히 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사부가 당신들에게 이처럼 신성한 일을 말한 것을 더욱 정진하는 동력으로 삼지 않는다. 만약 당신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정법제자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현재의 마난(魔難)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없으며 인간 세상의 안일(安逸)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끌려 사오(邪悟)할 것이다. 사부는 떨어져 내려간 그러한 사람들을 줄곧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수가 이런 마음에 이끌려 망가진 것이다.”

이번 고난 속에서 한 수련생이 꿈을 꾸었다(당시 그녀는 이번의 사악한 ‘노크’ 작전을 아직 알지 못했다). 어두컴컴한 밤에 그녀와 수련생 무리가 마치 죄수처럼 사악에게 압송돼 길을 걷고

있는 꿈이었다. 한 악마가 그녀의 대법서적을 빼앗아 두 조각으로 찢고는 입에 넣고 물어뜯으려 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온힘을 다해 그것을 다시 빼앗아 왔다. 그녀는 법을 숨기려 했으나 어디에 숨겨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고 풀숲에 숨기자니 남이 가져갈까 봐 두려운 데다 법에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해 자기 몸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양쪽 주머니에 각각 반 권씩 숨겼다. 그런데 주머니 한쪽이 터져 법의 절반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사방으로 찾다가 화단 시멘트 턱 위에서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발견했는데, 수련생이 사악에게 가중 처벌의 증거가 될까 두려워 버린 ‘전법륜’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주워 들었다. 그녀가 다시 동행한 수련생들을 보니 하나같이 마비된 표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 사악이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치는 폭력적인 박해를 마구잡이로 가하도록 내버려 둘 뿐, 반항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체 공간장에 사악이 유난히 많아 매우 억압감을 느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의 달이 유난히 컸고, 어렴풋이 파룬이 회전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수련생의 꿈은 문제를 아주 잘 설명해 준다. 수많은 수련생의 진실한 수련 상태를 짚어낸 것이다.

둘째, 갈등 앞에서 마음을 닦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으로 문제를 보아 구세력에게 틈을 주다

며칠 전 우리 지역의 한 기술 수련생에게 심각한 병엽 고비가 나타나 다들 열성적으로 그와 함께 법공부를 하며 법에서 인식을 제고하도록 도우려 했다. 그가 안으로 찾도록 돕는 과정에서 그가 예전에 저지른 위법적인 모금 등 경제 문제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어떤 이들은 다단계 등에 참여하지 말라는 사부님의 설법을 무시합니다. 수련생들을 끌어들이 자금을 모으고,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거나 플랫폼에서 무슨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수련생들이 여러 차례 지적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생활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대법을 단장취의(斷章取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정작 자신이 수련을 하면서도 왜 여전히 생활비가 없는지는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참여한 수련생들 중 어떤 이는 사악에게 박해를 받았고, 어떤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으며, 어떤 이는 소송에 휘말려 기력을 탕진했습니다. 심지어 구세력에게 틈을 주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수련생들을 끌고 가서 무료 물리치료를 받거나 건강식품, 보건 약품을 사도록 부추기며 자신을 일반인과 혼동하고 전혀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서적을 아무 데나 함부로 두어 책을 망가뜨리거나 더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많은 수련생들이 이 방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부님과 대법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니, 속인의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사악에게 이 방면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6. 남에게 지기 싫어하다

저는 이런 집착심이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속인일 때도 강압적인 성격으로 속인 중의 엘리트였고 가정에서도 주도권을 쥐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련에서도 비교적 정진하고 세 가지 일도 꽤 잘해냅니다. 하지만 승부욕 또한 꽤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수련생들 사이나 가족 구성원이 수련인일 때 이런

(無辜)하다 해도 “오, 알겠다. 내가 틀림없이 무언가 잘못했구나. 설사 정말로 잘못이 없다 해도, 아마 이전에 빚진 업을 갚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해서 갚아야 할 것을 갚겠다.”고 하면 된다.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고, 끊임없이 이러한 일에 부딪히며,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수련한다. 만약 수련인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바른 이치(正理)로 자신을 수련한다면, 당신들이 속인 중에서 부딪힌 언짢은 일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각지 설법11-대법제자는 반드시 법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사부님께서 어떻게 설법하셨고, 법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만약 위대한 각자(覺者)가 이 일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생각해야지, 속인의 정(情)과 관념이 자신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5. 제멋대로 행동하다

대법 속에서 수련하는 제자로서, 사부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위해 수련의 길을 체계적으로 다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착실하게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따라 잘 걸어가야 하며, 대법제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잘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련생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굴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어떤 이는 일반인들의 민족적 생활 습관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이는 공공장소에서 대법제자의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으며 말을 함부로 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깁니다. 어떤 이는 수련생의 선의 어린 권고를 듣지 않다가 결국 여러 차례 사악에게 납치되고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착실한 수련의 기초가 부족해 심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해 병세가 극심하게 악화됐고, 생명이 위독해져 결국 입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는 빚도 있고 집안 경제 상황도 어려워 병원의 값비싼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아들에게 억지로 이끌려 들어온 신수련생인 어머니는 병문안을 온 수련생들에게 고충을 토로하며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수련생들은 그가 맡고 있는 항목이 매우 중요했기에 다들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와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소수의 수련생은 그가 빨리 나아서 계속 모두를 위해 봉사해 주기를 바라며 기꺼이 돈을 내어 도왔다. 모금된 금액은 적지 않았을 것이며 게다가 외지 수련생들까지 동참하게 됐다.

어떤 수련생은 이렇게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수련생들의 맹목적인 기부를 저지하려 했다. 이는 즉시 수련생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련생들이 정보를 게시하는 대형 메일함은 비판과 논쟁의 전쟁터가 됐다. 게다가 일부 수련생 자신이 닦아버리지 못한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와 다른 공간 사악의 교란이 더해져, 한동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됐고 수련생들 사이에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사람의 마음이 크게 폭로됐으나 다들 자신을 닦을 줄 몰랐으니 장기간 이어진다면 반드시 폭발점이 생기고 구세력에게 틈을 주어 박해자들의 뜻대로 되고 말 것이다.

맺음말

물론 이번 법난이 출현한 데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의 수련 환경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었고 큰

박해가 나타나지 않자, 수련생의 환희심이나 자신은 꽤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만심 등도 따라서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박해받고 억눌려 온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미 여행, 여가, 휴가를 즐기기 시작했으며, 수련과 자신의 생활이 떼려야 뗄 수 없고 수련의 시작부터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수련은 큰 물결이 모래를 이는 과정과 같아서 모래라면 결국 걸려져 떨어지게 된다. 매번 나타나는 박해의 고조에서 항상 도태되는 사람이 있다. 정법 수련 중에서 대법제자에 대한 구세력의 검증은 혹독하고 파괴적이다. 진수자(眞修者)에게 있어 법난은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좋은 일이기도 하다. 정념으로 대한다면 진금(眞金)을 단련해 내어 수련생을 더욱 순정(純正)하게 만들어 더 효과적으로 중생을 구하게 할 것이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 이기심으로 대한다면 수련과 사람 구하는 일 모두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교훈을 받아들이고 법공부를 많이 하며 법공부를 잘하자.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수련인의 표준에 따라야 하고, 법을 가장 중요시하며, 법으로 일체를 가늠해야 한다.”(관견 시각에 사람 마음을 본다)

기운을 내어 사존의 가르침을 명심하자. “수련을 처음처럼 하든 도(道)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최후에 이룰수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대만교류회에 보냄) 정진하고 착실히 수련해야만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이상은 개인의 현 단계에서의 얇은 인식이다.

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그렇게는 안 되네요.” 사실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자신은 수련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교류할 때 아버지는 사위가 자신을 얼마나 불경하게 대하는지, 자기에게 보낸 절인 고기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사실 지역 특성상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는 등 불평을 늘어놓았고, 과연 말할수록 화를 냈습니다. 딸은 남편이 자기 생활 습관만 중시하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사위는 “이런 일들은 제가 이미 다 설명했고,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누군가 먼저 수련인의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자신을 안으로 찾았다면 이미 해결됐을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자아를 내려놓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주의해서 고치겠다고 말했다면 가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을 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인과 다를 바 없이 옥신각신하다 불쾌하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설법하셨습니다. “진정하게 당신 자신을 수련하며, 모순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의 어딘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법으로 가늠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것이 바로 수련이 아닌가? 당신이 출가하든, 당신이 집에서 수련하든, 속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당신은 자신을 수련하고 있지 않은가? 언짢은 일에 부딪히고,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에 부딪히며, 개인이익과 자아가 자극받았을 때, 당신이 안에서 찾아보고, 자신을 수련하며, 자신의 누락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갈등 속에서 당신이 정말 무고

으로 옮깁니다. 또 어떤 이는 다 읽은 ‘명혜주간(明慧週刊)’ 등의 자료를 장기간 자료점이나 협조인에게 되돌려줍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할 때, 집에서 수 마대의 ‘명혜주간’과 폐기된 컴퓨터, 프린터 등 다수의 장비, 그리고 쌓여 있는 각종 진상 CD가 발견되게 하여 수련생의 시련을 가중시킵니다. 어떤 이는 컴퓨터가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명혜망에 접속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자료를 만드는 수련생에게서 정법 교류 자료 등을 가져가기만 합니다. 자료점에 부담을 주고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갈등에 부딪혔을 때 안으로 찾고 안으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미루고 밖으로 추구합니다. 특히 온 가족이 수련인일 때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고부 사이, 장인 장모와 사위 사이, 수련생 사이 등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만 수련인으로 간주하고 수련인의 기준으로 상대를 요구합니다. 정작 자신도 수련인임을 잊고, 갈등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자신을 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한번은 제가 교류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적은 아버지, 딸, 사위 이렇게 세 식구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사위가 어떠어떠하다고 말하려 할 때, 제가 그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련인입니다. 부딪히는 갈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두 우리가 수련해서 없애야 할 것들입니다. 만약 제가 아버님 말씀을 다 듣게 내버려 둔다면 아버님은 갈수록 더 화가 나실 것입니다. 아버님은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저마저 거기에 장단을 맞춘다면 나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천목으로 본 것: 양팔저울 2대, 두꺼운 장부 2권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대심판과 도태가 이미 진행 중이며, 끊임없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나는 어떤 신(神)께서 엄숙하게 자신의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양팔저울 2대와 두꺼운 장부 2권을 관리하고 계셨는데, 하나는 속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제자의 것이었다.

속인 중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곧바로 도태됐으며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남은 사람, 즉 삼퇴를 하고 파룬따파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선택을 진행했다. 남게 될 사람들은 장부에 체크(V) 표시를 했고, 안 되는 사람들은 엑스(X) 표시를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정법(正法)에 교란 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좋은 작용도 한 사람들인데, 이때는 양팔저울을 사용해 잴다. 저울이 평형을 이루면 남겨두고 체크 표시를 했으며, 교란이 긍정적인 작용보다 많으면 도태시키고 장부에 엑스 표시를 했다.

논란이 되는 속인 중 비교적 전형적인 경우는, 남편, 아내, 자녀 등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선을 지키지 않을 때였다. 즉,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의무를 다하며, 신분이 가져다주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하지만 그중 어떤 이들은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

지 앓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전부 대법제자에게 떠넘기고 대법제자를 노예처럼 부리며, 대법제자가 해당 위치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했다. 만약 정법과 관련된 일이 아니었다면 빗진 것을 갚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행위는 직접 정법을 교란하고, 대법제자가 사람을 구하며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에 지장을 주었다. 그들은 입으로는 파룬따파가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사악과 같은 편에 서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상 알리기를 돕거나 밖에서 파룬따파가 좋다고 말하는 등 좋은 일도 좀 했다. 이때는 저울에 올려놓고 좋은 일이 많은지, 나쁜 일이 많은지 보았다. 나쁜 일이 좋은 일보다 많으면 엑스 표시를 해 소멸시켰다. 평형을 이루면 체크 표시를 했다.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많으면 아주 좋은 것으로 큰 복을 받게 되며 체크 표시를 했다.

직접 사부님의 정법을 교란하고 수많은 사람의 구원에 지장을 주어 소멸될 자들의 결말은 대단히 참혹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은 벌벌 떨었는데, 그들이 직면하게 될 형벌이 그 어떤 층차의 형벌보다 무겁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장부는 대법제자에 대한 평가였다. 수련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한 일과, 사람을 구하는 데 지장을 준 일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는 것이었다. 행한 나쁜 일이 좋은 일보다 많으면 정법을 교란한 것으로 인정돼 소멸 판정을 받고 엑스 표시가 됐다. 만약 같다면 서로 상쇄돼 통과할 수 있는 것과 같고,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많으면 더욱 좋다. 이것은 주로 사람을 구한 일을 재는 것으로 심성(心性)과는 관계가 없으며, 심성은 수련 층차의 문제다. 하지만 사람을 구한 일을 평가하는

이미 틀린 것입니다.

3. 관념을 고수하다

사람은 본래 수천수백 년 동안 뻗속에 형성된 사람의 이치를 고수합니다. 사부님께서는 ‘홍음(洪吟)’의 여러 시사(詩詞)에서 ‘현대 관념’, ‘진화론’, ‘무신론’이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중공 당문화 주입은 사람을 더욱 쉽게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게다가 직업, 성별, 성격의 차이 등으로 인해 종종 자신의 관념, 인식, 습관을 고수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념으로 문제를 보고 대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은 제가 ‘병업 고비’를 겪고 있는 수련생과 교류하러 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제게 아들이 ‘뇌위축증’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이미 진수(眞修) 제자의 병근(病根)을 다 제거해 주셨는데 무슨 ‘뇌위축증’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 의사 수련생이 한 말입니다”라고 하더군요.

고비를 넘기는 것은 본래 수련 중에서 응당 집착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개인 생활의 일로 여기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근거로 삼아 대처하며 법은 뒷전에 미뤄둡니다.

4. 자아를 옹호하다

현실에서 어떤 이들은 납치됐을 때, 마땅히 즉시 안으로 찾아 자신을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수련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거듭 저지릅니다. 어떤 이는 ‘민감한 시기’만 되면 대법서적이거나 진상 자료를 만드는 장비들을 다른 수련생 집

대법제자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을 하는 과정에서, 대법을 파괴하고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악을 제거할 때는 유아독존(唯我獨尊)하고 천지를 떠받칠 기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생을 마주할 때는, 수련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가량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도 참아내는 경지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사심이 없고 자아가 없으며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나중에 생각하는 정각(正覺)으로 수련 성취할 수 있습니다.

2. 스스로 옳다고 여기다

이 문제는 수련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항상 자신이 법공부를 잘하고, 법에 대한 인식이 좋으며, 오성이 좋고 높게 깨달았다고 자만하며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진상을 알리러 다닐 필요가 없어. 주로 수련생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비를 잘 넘기도록 도와주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 어떤 이는 법공부 팀을 조직해 놓고는 정작 법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단지 법공부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공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저 구체적인 문제에 얽매어 왈가왈부하고, 오랫동안 사람 마음(人心)에 집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논쟁할 뿐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설법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강조하는, 이 자체가 바로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속인의 이치로 당신 자신을 가늠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각지 설법10-맨해튼 설법)

사실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며 자신의 인식이 맞다고 고집할 때,

이 고비를 넘지 못해 소멸로 판정된다면, 심성의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법제자 중 비교적 전형적인 경우는, 사오(邪悟)했지만 다시 돌아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며 과실을 만회하는 수련생과, 앞에서는 매우 정진하다가(노력해 사람을 구함) 뒤에서는 박해를 받아 의기소침해진 수련생의 경우였다. 또 수련생 단체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켜 다른 수련생이 사람을 구하는 것을 교란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드시 소멸되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이 장부에 기록돼 있었으며, 세상을 떠나고 환생한 사람을 포함해 각자 평가하고 측정돼야만 남을지 떠날지 결정될 수 있었다.

나는 문득 ‘이것은 대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같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다. 나는 신께서 엑스 표시가 된 사람들에게 대해 침통하고 엄숙하게 분노하시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기회를 아주 충분히 주었음에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며, 최후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위치가 바로 고정되기 때문이었다. 엑스 표시를 받은 사람들은 천법(天法)을 어긴 생명으로 취급될 것이다.

수련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절대 초조해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이성을 유지하며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노력해 사람을 구하고 세 가지 일을 잘해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단체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 수련생은 서둘러 고치고 가서 사과하며 화해하라는 것이다. 매일 다른 수련생의 결점만 찾는 것은 내부 소모다! 이번에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니 정체(整體)의 힘을 사람을 구하

는 데 써야 한다. 절대 마(魔)의 작용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어찌면 아주 작은 차이로 남을지 떠날지가 결정될지도 모른다.

수련생들은 남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아마 많은 수련생이 보거나 느낄 수 있겠지만, 사부님께서는 수련생의 입을 빌려 일깨워 주시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수련생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 비판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써야 한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인식 교류

글/ 원난성 대법제자

[명혜망] 수십 년간 착실히 수련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 수련생들과 교류하며 저는 누구에게나 항상 없애기 매우 어려운 근본적인 집착심이 하나씩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성 제고를 교란하고 가로막습니다. 비교적 보편적인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는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수련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일에도 모두 ‘자아’를 고수하며, 많은 경우 사부님의 법으로 덮어 감추고 넘어가려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 인식을 이야기해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하니,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라며 함께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을 과시하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특별히 ‘과시심’에 관한 법

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자아 표현으로 인해 때로는 수련생들과 교류할 때도 이런 마음이 드러나곤 합니다. ‘나는 매일 ‘전법륜’을 몇 강 읽는다, 매일 법을 몇 장(章) 외운다, 매일 세 시간 가부좌를 하고 두 시간 포륜을 한다, 오늘 진상 자료를 얼마나 배포했고 몇 명에게 삼퇴를 권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등등입니다. 또 이렇게 과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납치됐을 때 사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고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외쳤다, 나는 죄수복을 입지 않았다, 나는 어떠한도 없었다’ 등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아무개 글은 누가 썼고 아무개는 진상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시심은 수련에서 아주 크게 꺼려야 할 문제로, 이 마음은 사악에게 틈을 주기 매우 쉽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박해받은 많은 수련생들에게 상당 부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본인에게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법리에 대한 인식이 꽤 괜찮고 대법 일도 잘한다고 여기며, 구치소, 노동수용소, 감옥에서 내가 어떠한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련생들 속에서 자신을 내세웠는데, 제가 여러 차례 박해받은 것은 과시심, 일 욕심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사부님께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생명인데 무엇을 과시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대법 속의 한 입자일 뿐이며, 우리의 모든 것은 대법과 사부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부님이 안 계시고 대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자신을 위해 한 일입니다. 무엇을 과시할 것이 있겠습니까?